

간호의 기본 원칙 (5)

Miss Virginia Henderson

<우석간호학교 보학과장>

이 송 희 역

9. 환자가 환경으로 부터 오는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환자에게서 올 수 있는 感染, 暴行등의 잠재적인 위협으로 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일.

각 재인은 건강할 때이면 자유로히 자기의 환경을 조정하고 환경이 위협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변경하여 생활한다. 그러나 환자에게는 이러한 자유가 없는 일이 많다. 또한 無知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경우나 건강치 못한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두려움을 갖다주는 것이다. 환자나 병원손님들은 의도요원들이 알지 못하는 禁忌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당한다. 신분, 습관 및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까다로운 성격의 사람으로서 보호되고 있는 환경만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공동생활도 받아드릴 수가 없을 것이다.

무엇이 진정한 위협인지, 그리고 습관이나 종교적 행위 때문에 생존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간호원의 지식이 풍부하면 할수록 그 위협을 제거하거나 통제하거나, 혹은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명하여 안심시키든지 하는 일을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착란이 있거나 정신이상 환자의 간호에 있어서는 환자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한 문제이다. 자살습관이 있는 환자를 보호하고 殺人狂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일 등은 보호하는 기능이 기본간호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전염성이 강한 질병의 환자를 간호할 때에는 간호원 자신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염병동에서의 간호시간은 다른 병동보다도 비교적 많이 소요된다.

추락사고와 같은 기계적 손상, 火災와 같은 물리적 위험, 독성 화학적물질, 동물과 곤충의 해, 그리고 환경내에 항상 존재하는 病原性微生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환자를 돕는 일은 기본간호의 일부에 포함된다.

安全教育도 모든 간호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정, 학교, 산업장 또는 보건기관 등 어떠한 간호사업에 종사하고 있던지 간에 간호원은 사고를 예방하는 일에 협조해야 할 직책에 있다. 간호원들이 技士, 교육자, 그리고 家政婦들과 더불어 가정에서의 사고예방 사업을 실천하였을 때 그 사업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병원에서 관리가 적절하면 환경이 미치는 위험은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機關部間이나 하우스키핑부분을 가진 병원이라 할지라도 병원의 관리는 필연적으로 간호요원들에게 많이 의존하기 마련이다. 계속적으로 환자와 같이 있는 사람은 간호원들이며 醫師가 保護的器具(억제제)의 사용 또는 계속적감시(자살기도자의 경우)등의 指示를 함에 있어서는 간호원의 관찰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환자가 좋은 간호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물리적 억제같은 것이 환자에게 불필요하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억제는 할수만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간호원은 物理的傷害의 기회를 최소한도로

감소시킬 수 있는 건물의 건축이나 기구의 구입 또는 설비의 유지 등을 추진시키는 입장에 있다. 간호원은 강한 藥劑를 보관하고 지키며 또한 害蟲驅除에 다른 직원들과 공동으로 작업한다.

많은 나라에서는 그 기관에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경우에 간호원들이 스스로 主導權을 가지고 家具, 機具, 공급품등을 공동사용을 위해 안전하게 만드는 消毒, 滅菌의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化學的인 消毒, 滅菌의 방법에 비하여 物理的인 消毒의 優秀性을 보이는 믿음만한 여러가지 증거가 있으므로 지식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사용되는 食器나 洗面具 그리고 리넨類가 高熱이나 放熱을 사용하며 소독된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創口에 직접 사용하는 것들은 高壓蒸氣나 高溫乾熱 또는 放熱을 장시간 사용하여 완전히 멸균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간호원의 전문적인 일을 보전하기 위하여 간호원 아닌 사람을 훈련하여 이와같은 消毒이나 滅菌의 일에 대비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간호원은 感染豫防의 원리 및 방법에 정통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독이나 멸균의 기능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실제적도 아니고 이상적이라고도 할 수 없다.

共同社會生活에 있어서는 각 개인은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害를 주는 입장에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未發見의 結核病, 性病, 또는 咽頭에 亞急性의 포도상구균성 감염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腸疾患의 保菌者일지도 모른다.

기본간호에서는 각환자에게 가장 적당한 보호를 하여 주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간호원이 손을 씻는것, 마스크, 豫防衣, 고무장갑을 사용하는것, 한번 사용후 처분해 버릴 수 있는 공급품, 소독 혹은 멸균된 공급품이나 기구를 구비하여 두는 일 등은 이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10. 환자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돕는 일.

精神身體醫學 및 精神科治療에 있어서 오늘날 강조하고 있는 바 인간의 정신과 신체는 상호의 존적이며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학설은 이미 일반적으로 수증되고 있으므로 여기 되풀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소위 “정신적” 질환은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끼치며 소위 “신체적” 질환은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 건강할 때 사람의 모든 감정은 무엇인가 신체상의 표현을 동반한다. 혹은 이같은 신체상의 변화가 그 사람의 감정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빠른 심장의 고동과 호흡수, 안색의 변화 등을 우리는 감정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이 같은 신체상에 나타나는 변화없이 우리는 어떠한 흥분도 느끼지 않는다. “정신적” 우울은 그때로 그 사람이 취하는 姿勢, 움직임이 없는 얼굴표정, 動作의 감소 등으로 표현된다.

만일 간호원이 인간의 감정이 신체상의 변화와 이같이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러한 精神身體反應중의 어떤 것은 환자를 위해 건설적이며 도움이 되는 반면에 또 어떤 것은 파괴적이고 도움이 안된다는 개념을 용이하게 받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思想, 감정, 욕망등을 자신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신체상에 표현하고자 원하며 또한 어느 정도 자기중심적 태도를 넘어서 더욱 다른 사람도 이런 의미에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讀者에 따라서는 이것은 건방진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간호원은 의사소통과 같이 각 사람의 전체인격과 연결이 되며 대상에 따라서 개별적이고 대단히 복잡한 기능을 통하여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들을 돕고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간호원을 “전문적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표현을 건방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는 乳兒나 병든 어린이를 대

신하여 말하고 또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기 자기가 자유로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머니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가 나쁜 것인지 모를 때에도 “그 아이는 피곤했어요” 라든지, “그 아이는 배가 고파요” 라든지, 또 “그 아이는 놀랐어요” 등으로 자신있게 말하며 또한 실지로 어머니가 말한 것은 사실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다. 또 어머니는 어떤 의미에서 안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 자기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이 누구이며 그 아이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기도 한다. 현명한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好意를 갖도록 양육하기를 힘쓰며 또 자기 아이를 자신이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여 주고 사랑스럽게 보아 주도록 그들을 도와준다.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아이들의 독립정신을 키우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공포에 번민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간호원의 비실제적인 생각이라고 異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간호원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대변자이며 또 어느 정도 환자를 위하여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주며 전체적인 복지를 증진시켜 주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떠나서 입원생활을 하는 일, 그리고 변경된 상관관계에서 오는 공포가 질병에 수반되는 고통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사실이다. 그와같이 환자가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고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 정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에는 그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경우 환자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대하여 아주 무관심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이다.

간호원이 환자나 그의 가족들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의 信賴를 얻으며, 환자가 질병으로 부터 오는 심리적인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간호원이 대변자 혹은 의사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즐겨 받아 드

린다고 하면 환자의 옆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며 환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쪽에서 이야기를 건너든지 하는 기회를 즐겨 받아드려야 하는 것이다. 간호원은 환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친척들이나 친구들, 혹은 종교관계자들을 환자곁에 대려다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그 환자중심의 회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회의에서는 그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사람들 전부가 모여서 환자의 유익을 위해 서로의 지식과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회의에는 때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가 되는 환자를 참석시키는 일도 있다)

정신과 병원에서는 소위 “치료적 공동사회”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건설적인 인간관계가 이 공동사회의 중요한 관계가 되어 있다. 일반 간호에 있어서는 보통 환자가 그러한 공동사회에 참가하고 있는 기간이 짧은 관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시설이던지간에 간호원은 환자가 자기의 욕구, 흥미, 소원 등을 만족하리만큼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전통적으로 醫師는 환자의 상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간호원이 환자를 간호하는 동안에 관찰한 일, 들은 일, 그리고 느낀 일, 냄새맡은 일 등을 참고로 한다. 그러나 간호원의 이 전달은 본래는 환자가 말하여야 할 것의 대변에 불과하므로 醫師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환자와 의사 소통하여 환자가 자기의 말로서 말하는 것을 듣고자 한다. 그러나 환자와 醫師와는 극히 짧은 시간 밖에는 만나지 못함으로 환자가 醫師와의 사이에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호원의 기능은 기본 간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11. 환자가 자기의 종교에 입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혹은 환자자신의 善惡의 개념에 따라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민족, 주의, 인종을 초월하여 환자를 위해 봉사하는 일은 오랜 세기동안 의료업자들의 윤리적 강령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국제적십자사가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보다도 먼저 탄생하였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醫師도 간호원도 직업적인 위치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가치 체계를 환자에게 넣어 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의료업자들은 “聖人”이나 “罪人”에게 똑 같이 봉사한다는 원칙을 수락하고 있다. 의료업자들은 가난히 앉아서 판단하는 것을 피하며 깊이 규명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거짓말을 비난하기 전에 거짓말을 하게 한 원인을 찾아내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 나라에 있어서 의료요원들은 성직자들과 동일하게 어떤 종류의 法的義務의 면제를 받고 있으며 그것에 의하여 저들은 환자들의 비밀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또 소위 범죄를 알면서도 그것을 보고하지 않고 사회가 “범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客觀性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은혜를 입히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이 宗教와 醫學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한편 바람직한 방법 같으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자신이 믿는 教義에 따르는 權利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의료업자와 성직자들 사이에 보다 나은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어떤 재단이 재정적 후원을 하여 이에 관한 심포지움을 가졌으며 이러한 회의에서 이야기된 그대로의 보고서가 출판되었다. 또 약간의 서적이 醫學者와 宗教人과의 共同으로 저술되고 있다. 이런 것에 의하면 聖職者는 환자들에게 봉사하도록 특별한 훈련을 받으며 한편 醫師들은 성직자들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공부할 때에 같이 참여하기도 한다. 큰 병원에는 거기 모이는 사람의 대부분이 신용하고 있는 宗派의 院牧이 있다. 그와 같은 시설에서는 만일의 경우에 외부에서 정신적조언자를 초빙하지 않으면 안되는 병원보다는 의료업자와 성직자들이 환자의 편익을 위하여 더욱 긴밀한 관계하에

일하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환자의 영적 욕구를 존중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도록 돕는 일은 기본간호의 일부이다. 만일 종교적인 생활이 어떤 사람이 건강할 때에 그의 행복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한층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다. 환자 개개인이 자신의 종교에 입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여러가지 특수한 활동이 포함되지만 그 전부를 여기 기록할 수는 없다. 다음은 그와 같은 활동 중에서 비교적 분명한 것들의 몇가지 예이다. 환자가 禮拜를 드리는 장소에 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일, 또는 그 사람의 宗派의 성직자를 환자곁에 모셔오는 일,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환자가 성직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여 주는 일, 또 환자의 종교생활의 일부로서의 聖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하여 주는 일 등등이다. 대부분의 간호원의 경우 환자 각개인의 신앙에 대하여 무엇인가 알고만 있으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간호원이 만일 종교에 관하여 아무것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러한 일을 시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어떤 종류의 종교적 법칙은 일상생활의 여러가지 부면을 간섭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음식의 섭취를 금하거나 또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害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믿어지는 오락을 금하기도 하며, 또 여러가지 종교가 禁食日 혹은 安息日을 정하고 있다. 보건기관이나 병원이 모든 환자의 종교적 욕구에 합치되도록 움직인다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간호요원들은 주야로 환자와 같이 있으므로 환자가 어떠한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한 병원의 일상 규칙으로 인해서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간호원의 종교에 관한 지식이 넓고, 또 종교의 치유력을 믿는 신앙이 크며 그리고 영적으로 보다 높게 도야되고 여러가지 종류의 신앙에 대하여 보다 관용하게 될 수록 환자를 위해 더욱 많이 봉사하게 될 것이다.

12. 환자가 일을 하거나 혹은 생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하루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 어떤 일을 한 것이 포함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혼수상태에 있다고 하면 별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참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라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활동의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손과 여러가지 감각을 통하여 습득된 어떤 종류의 지식에 의해 형성된 물질적인 물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성인들에게 무엇인가 생산하는 일을 자연히 기대하여 아무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회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혹은 생산적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사회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어떠한 나라의 言語에도 다음과 같은 格言이 있는데 그 말에 의하면 인간의 만족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며, 그 사회적 인정은 반대로 각개인의 생산활동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만일 환자가 무엇인가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장기간의 침상안정이 좋지 못하다는 근래의 반대이론의 일부에는 인간이 보통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동반되는 無價値感을 한층 더 쌓이게 하는 결과가 되기 쉽다는 이유가 있다. 사람은 정신적으로 생산적이면 비록 육체적으로는 제한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침대에 틀어박혀 세월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老年까지 살아갈 수가 있다. 예를 들면 Florence Nightingale은 그 인생의 태반을 자기 방에 파묻혀 지냈으며 또 그 대부분을 病床에 누어 있었지만 그녀가 쓴 많은 편지가 수집되었을 때 그녀가 실로 팽대한 交通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가 “병약한 몸”으로 있으면서 성취한 일은 소위 그녀의 “활동적” 시대에 성취한 사업에 못지 않게 주목할 만한 훌륭한 것이었다.

환자의 하루의 일과의 계획을 같이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간호원은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시킬 상태를 만들어 줌으로써 어떠한 일에 환자가 흥미를 일으키도록 격려할 수가 있을 것이다.

기본간호의 다른 모든 부분과 같이 여기에서도 환자의 욕구를 바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자연은 모든 生物에게 살려는 意志를 주었고, 生存의 본능이 위협을 받을 때에는 모든 정력이 生存의 방향으로 집중된다. 위독한 상태에 있는 병자에게 무엇인가 기대한다는 것은 人生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 그러나 위독한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아직까지도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갈망하는 원심이 인간 세계에 치유의 “기적”을 나타낸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간호원은 환자의 작업을 향한 관심의 징후를 관찰하여야 하며 만일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기술도 좋으면 환자에게 어떠한 일을 성취하였다는 기분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시킬 기회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手細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특히 환자에 대하여 美學的도 아니고 또 실용적도 아닌 느낌을 주는 것은 부적당하다. 각개인을 위하여 가급적 여러가지 종류의 광범위한 활동이 있어서 각개인을 위해 유익한 일이 선택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강할 때 보다는 병중에 있을 때에는 일에 재미를 붙이는 일이 한층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再活療法의 최종적 과정에는 환자가 재차 생산적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離職期間이 짧으면 짧을 수록 이 최종적 과정을 성취하는 일은 더 용이하게 될 것이다.

再活療法 과정에서는 物理治療士, 作業治療士, 遊戯治療士, 기타의 전문가들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같은 전문가들의 봉사는 비교적 소수의 환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醫師와 간호원(診療팀의 常在員)은 많은 경우 되도록 힘껏 그들 전문가를 대신하여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